



독도를 지키려는

# 독도소식지 제15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3년 12월 18일  
 604-812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 263  
 TEL, FAX, 겸용 051-782-9174  
 E-mail, ds5ean@naver.com  
 H.P. 010-6504-6510

제간15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 독도소식지 15호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독도주인이니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원가입 하시면 독도 지키는 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지키자!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 현재 상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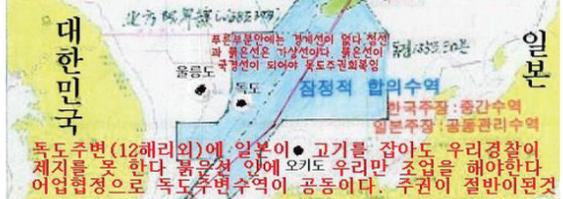
독도바다는 1999년1월22일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 우리바다가 공동수역이 되었다. 양국이 어업협정을 그렇게 한 것이다. 붉은선(독도와 오키도 중간)으로 한,일 경계선이 되어야 독도주권을 찾는 것이다. 세계 각국 지도는 다케시마로 표시되고 있으며 세계인들은 일본 땅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독도 이상훈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에 해양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 독도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일본은 공동수역이라 함)이 되었다. 독도주변 수역은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독도의 주권이 일부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발신 말고, 통행권, 영유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자유인도 주권자유라고 행정장계를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협정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을 배제하지 않음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영유권주장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됨

붉은 글은 설명 글입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 日정부, '독도는 일본땅' 해외홍보 강화 수정 2012-09-21 09:59:14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20일 총리 관저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과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국가전략상, 그리고 관련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홍보연락회'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해외 홍보전략을 '새로운 중외교제'로 정해 정부 대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겐바 외무상은 "독도와 센카쿠에 대한 전략적 대외 발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주재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센카쿠 국유화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외무성은 자국의 해외 공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을 상대로 독도와 센카쿠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주일간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개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낸 것은 처음이다.

(도쿄연합뉴스)김종현특파원 kimjh@yna.co.kr

### 후원금 주신 분

박 득 자	부산시동래구운천2동력키A	5,000원
이 초 근	동래구 낙민동 한일유엔아이	5,000원
김 정 구	경남 김해시장 유면 내덕리	7,000원
박 순 덕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주공A	12,000원
심 진 미	금정구 구서1동 에그린A	5,000원
박 국 석	전남 나주시 이창동	10,000원

## 확대된 한국방공식별구역 15일 오후 2시 발효

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 이어도 상공 첫 감시비행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15일 오후 2시를 기해 이어도와 마라도, 흥도 상공 등으로 확대된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KADIZ)이 공식 발효됐다. 이날 확대된 KADIZ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공군 항공통제기(피스아이)는 이어도 남단까지 감시비행에 나섰다. 정기적으로 우리 KADIZ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해왔던 피스아이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에 따라 이어도 상공에서 첫 작전 비행을 수행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발표했다. 또 국방부는 12일자 관보에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KADIZ 변경을 고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이번에 조정된 KADIZ 내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론] 독도 정책 전면 쇠신해야 / 이재하

한겨레 등록 : 2013.09.09 18:32

지난 8월 초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시행한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그들의 94.5%가 독도를 알고 있고, 60.7%가 일본 고유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필자는 이것을 아베 정부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도 과거 독도정책을 성찰해보고 전면적으로 정책쇄신을 단행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영유권을 포함한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박 외교성명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일본의 계속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분쟁 문제화에 대해 1954년부터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아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발표하곤 했다. 과연 역대 정부는 기본입장처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배타적으로 확실히 행사해 왔는가? 이승만 정부는 1953년 4월 출범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점거·수호활동을 지원하다가 1956년 말부터 경찰로 구성된 독도경비대가 맡게 하는 등의 영유권 행사와 실효적 지배에 그쳤다. 박정희 정부는 독도문제를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을 크게 훼손하는 역사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독도문제에 대해 별도로 1965년 1월 '독도에 관한 비밀협정(독도밀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도 전 정부의 독도 정책을 계승하여 어떠한 개발행위도 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초 일본의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 등에 맞서 독도의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로 1997년 11월에 독도 선착장과 어업인 숙소를 건립한 바 있다.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앞둔 7월에 일본과의 협력 관계 때문인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기점을 독도

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고 발표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였다. 김대중 정부도 일본이 한국의 경제위기를 국익 기회로 활용하려 이재하 경북대 교수 1998년 1월 과거한 한-일 어업협정을 11월에 다시 체결하며 독도 주변해역을 양국의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유권을 훼손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의 독도문제 분쟁화를 노골화하자, 과거 정부와 달리 대통령이 2005년 3월과 2006년 4월 각각 담화문을 발표해 독도문제를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미 청산 문제로 규정하고, 독도의 영토주권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2012년 8월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하여 영유권 수호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영유권 행사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역대 정부는 이처럼 기본입장과 다르게 독도를 국내의 정치에 편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영유권을 훼손하기도 하였고, 1950년대부터 점거하고 있는데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제반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유엔해양법협약 상 독도의 섬으로서의 지위 확보에 필수적 요건인 다수 한국인이 정주생활 하는 유인도 개발에도 매우 소홀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없고 소극적인 독도정책이 오늘날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이 심화한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한국의 독도(Dokdo island)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적불명의 무인도를 의미하는 리안쿠르 암석(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되는 데도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독도정책의 한계점을 성찰하고, 앞으로는 정권과 무관하게 모든 정부가 견지해야 하는 이른바 '독도 수호와 유인도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이재하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



이재하 경북대 교수

# 독도사수연합회 활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독도시민단체장들이 일본에 대응회의 기념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장회의)이. 취임식



독도OK,다케시마NO.이지산작가의 출판기념회



햄독도사랑회 황령산이동운영 무전기로 독도홍보



자유 총 연맹부산시지부 독도시진전(칙령행사장)



고종황제독도칙령113주년기념식 (독도날4회 ??)



햄독도사랑회 이동운영 독도 전시물



독도NGO포럼회원들 이병석국회부의장과간담회



국회의원회관에서 독도NGO포럼 회의 중

## 안녕하세요? 본회고문 안준식입니다.



저는 기장군 동부리에 사는 안준식입니다. 나이 75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야간방범순찰을 17여년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별로 지역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표창장은몇 개 받았습니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합니다. 어느 날 독도소식지라는 간행물을 보았습니다.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명칭이 좋았습니다. 독도를 지키자고 말만 한다고 지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도가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좋았습니다. 소식지를 보니 단순히 지키자는 글이 아니고 이론과 논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하 독도에 무심한 국민들이 독도를 알게 하려고 또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땅이 뺏기나?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던 나는 이론과 논리로 이렇게 위험하다는 글을 보고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하든 차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회비를 내게 되니 회장님이 나이 많다고 고문으로 추대를 한답니다. 일본식민지 시대에 낫그릇도 총알 만드는데 쓴다고 농사지는 곡식은 일본군 군양미 한다고 빼앗아 간 일본인 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침략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이 있는 분들은 모두 힘을 모아 독도를 지키도록 합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입니다.

2013년 7월 기장읍 동부리 자택에서 안준식 씀

##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이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이 말이 요즘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비상식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본회 자문 문병준입니다. 현재 대학 강사로서 고대 역사와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비상식의 일본에 대하여 독도지키기에 관심을 가진 지 벌써 강산이 두 번 바뀝니다. 아직도 일본의 태도는 변치 않습니다. 아니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편승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입니다. 이를 지켜보며 더욱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일본만이 독도의 걸림돌은 아닙니다. 세계시민사회에도 독도를 올바르게 알려야 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진정으로 독도를 지키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행동할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독도의 현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512년 독도를 복속한 이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놓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불리를 떠나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실제적 진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바른 실천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아가서 여러 독도단체들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의식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끊임없는 피드백과 연구를 통한 자가발전을 해야 합니다.여러분! 독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안녕들 하십니까?”

2013년 12월, 또 한 해를 보내며 문병준

독도사수연합회는 인터넷 카페 10여개가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연합을 합니다. 독도행사, 독도세미나 참석, 독도단체장 회의 참석, 독도 홍보활동, 독도탐방, 독도정책 수정요구 서명운동을 합니다. 회원님들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올림

###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12편



전후 처리 조치로 인한 문제들 중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군대위안부 문제」이외에도 2차 대전시 ‘일본 군대의 남경대학살’ 책임을 묻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의 성립과 시행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왜곡된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미국과 중국 및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다.

가장 주동적인 주체는 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ALPA:世界抗日戰爭史實維護聯合會)라는 단체인데 미국, 중국 및 Canada에 있는 많은 유관 단체들과 함께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ALPA의 활동 중에서 “SFPT: An unjust treaty” 라는 분야는 1951년 대일강화조약의 실체에 관한 여러 실증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어떤 형태의 반성과 사죄도 완강히 거부하던 종전 직후의 기고만장한 전쟁 무책임론(無責任論)에서 벗어나 1980년대에 와서 차츰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태도의 변화를 취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

2차 대전의 전후 처리가 외면해 버린 “식민지 지배의 가혹한 실상과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즉, “식민주의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과제”를 국제사회 모두가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까? 위에서 검토한 모든 경과를 종합해서 보면, 아주 완만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식민주의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과제」는 국제사회 모두가 일본에게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일본 국민 자신들도 스스로의 이성적인 자각에 의해서, 1980년대 이

후,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받아드리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주 완만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식민주의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과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취한 가장 극적인 정책의 변화는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라고 볼 수 있다.

이「무라야마 담화」를 통하여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식민강점에 대한 분명한 “사죄”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일합방은 적법(適法)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는 견해를 고집하고 있어서 일본이 모처럼 인정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도의적이며 감정적인 책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이 담화는 1995년 당시 일본 정계의 각 계파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서 채택된 문서는 아니다. 따라서 우과 계열에 속한 자민당계 정치인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발(反撥)하며 오히려 원색적인 망언(妄言)을 마구 쏟아 놓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일왕의 사죄 발언과 총리들의 과거사 반성 발언 등을 미루어 볼 때 대체로 일본정부의 공식견해(公式見解)로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사에 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의사 표시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은 홈 페이지나 카페에 교수논문에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는 다른내용이 연재 됩니다. 편집자]

### 독도 주민 첫 세금 낸다... "독도 영유권 강화에 도움"

최종수정2013.12.1607:50기사입력2013.12.16 07:50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독도 주민 김성도(74)씨가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따른 국세를 처음으로 납부한다. 독도에 국세가 부과되는 것은 처음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독도사랑카페'를 열고 독도 선착장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티셔츠, 손수건 등 기념품과 직접 채취한 해산물 등이다. 김씨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다음 달 판매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예정이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에게 국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이 독도에서 나는 감치, 미역 등에 세금을 부과한 기록이 있다. 김씨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셈이 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 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 국제공항에 각국어로 독도 자료 전시 하게 하라.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도를 지키는 운동을 합니다. 2000년에 본격적 독도로 이전하고 혼신의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생업도 그만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거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인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전시물을 10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60cm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 전시를 하려다 거부 당하여 못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내용은 첨부 파일 한글을 첨부 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아랍어가 있습니다. 허락 하시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시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아래 주소입니다.

<http://dokdomart.byus.net/index4.htm>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051-782-9174 (전화전송 겸용)

일본은 독도 뺏으려 기를 쓰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고 각국어로 동영상 만들어 배포하고 일본 땅이란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를 한다.

일본의 독도침탈 의지는 우리국민들이 생각 할 수 없는 만큼 강하다. 일본은 평화적으로 돌려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언제 무력을 사용 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도주인으로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 독도홍보도 못하게 하는데 어찌 되겠는가?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에 자료를 만들어 국제적 홍보하자. 우리는 우리 땅만 외치면 독도 지켜지나? 우리도 우리 땅 근거를 외국인 보는 곳에서 홍보하자.

독도 이상훈

###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 제정 113주년 기념식

주최 : 독도사수연합회    후원 :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일시 : 2013년 10월25일 (금요일) 15시 /    장소 : 부산역광장

##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113주년 기념식과 독도 날 4회를 비교하자!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113주년”은 제목이 너무 길다. 독도 날 4회 제목이 간단하다. 그러나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113주년 기념식은 독도칙령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운동의 수단이다. 독도 날 4회는 일본이 다케시마 날 행사를 하니 우리가 따라하는 느낌을 준다.



독도는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점령 하면서부터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된 것입니다.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연연합회)에서는 1900년10월25일에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수는 울릉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라는 칙령41호를 제정 하시고 동월 27일에 칙령41호를 대한제국 관보1716호를 통해서 반포하여 국제 법 적으로도 대한제국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2008년 “고종황제 독도칙령제정108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의결한 후 고종황제 독도칙령기념일을 제정하자는 말이 독도단체장들의 요구였습니다. 2008년 독도NGO포럼회원들과 흥사단이 탐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 108주년 독도칙령기념식을 한 직후에 독도NGO포럼회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1회 독도의 날을 만들면 안되고 108주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도 탐골공원에서 독도향우회 주최로 109주년 독도칙령기념식을 했으며 2010년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 1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부산정발장군 동상에서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독도단체들이 매년 연중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에는 덕수궁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 재현 행사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독도NGO 포럼과 독도의병대가 국회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 113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오신 여러분의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는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를 제정한 10월 25일을 제정 기념일로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독도 날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독도의 날을 만들으로써 1회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날을 8회째 개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어 1회를 기념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 세계인들이 볼 때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 론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 하도록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일본을 뒤따라가기보다 앞질러 가야 할 것입니다. 독도칙령41호 제정 기념일과 선포기념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일본보다 국제법 근거가 우리가 빠른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굳이 독도의 날을 제정 하자고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께서는 독도 날을 정하려면 신라의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 안용복 장군이 독도가 조선 것임을 확답 받고 돌아온 날,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처음 상륙한 날, 독도경비대가 정식으로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날, 최종 덕씨가 독도 주민으로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던 날, 등 그 외에도 여러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해야 독도 주인으로서의 명분이 있습니다.

유독 10월25일만 독도의 날을 정함으로서 우리 스스로 신라시대부터 대한민국의 것이었던 독도를 근대로 끌어내려 조선시대 쇠퇴정책이 진행 중일 당시 불법으로 독도에 출입했던 것을 빌미삼아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도의 날보다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들으로써 시마네현 고시를 만들어 놓고 공개도 못한 날을 근거로 일본인이 독도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는 것이 수치인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세계인에게는 독도가 대한민국 것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독도로 본격 이전하고 운동하는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이상훈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황제께서 일본의 영토 야욕을 내다보시고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석도]를 울릉[도]군의 관할로 하여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한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일본은 그보다 5년 뒤인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침탈했으며, 나아가 그 불법강탈한 날을 뻔뻔스럽게도 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독도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앞잡아 볼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저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도록 깊이 상고하시어 독도의 날이란 용어는 삼가 하시고 독도칙령기념일로 기억해주시시오.

(독도평화33 대표 황용섭 글 중에서)

###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주택)	(직장)	(휴대폰)	
주소 (주택)	소속단체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직업(명)	E-mail		
참고로 기록 합니다.			
년납 ( )	월납 ( )	회비	자동이체 (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시납 : 현금 (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 ds5ean@naver.com lsh54a@hanmail.net 보내세요.

**독도소식지 15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키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까지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